

영양 남씨(英陽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국시봉(國是峯)

국기(國旗) 게양대의 깃봉과 같이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대흥사지(大興寺址)

651년(신라 진덕왕 5)에 의상대사(義湘大師)가 창건했다고 전하는 신라 사찰로 현재 사지만 현존한다. 용(龍)트림 목침(木枕) 받침 건물 방식으로 지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3) 성황당(城隍堂)

마을 입구(入口)의 미루나무를 성황신(城隍神)으로 모시며, 매년 정월 보름날 자정(子正)에 엄선된 제관(祭官)이 마을의 강녕(康寧)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린다.

4) 소봉산(巢鳳山)

지금은 폐사된 대흥사(大興寺)의 뒷산이며, ‘봉황(鳳凰)이 알을 낳는 보금자리와 같다’ 하여 소봉산(巢鳳山)이라 한다.

5) 약구산(岳丘山)

태백산맥(太白山脈)의 지맥(支脈)인 안일왕산맥(安逸王山脈)이 동남(東南)으로 뻗어 낮고 가늘게 되었다가 갑자기 높고 웅장하게 치솟은 산(山)이며, 산 정상(頂上)은 두 개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제5절 명도1리(明道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산 능선 너머에 온양리(溫洋里)가 있고 2km 거리에 동해가 있다. 서쪽은 내(川)를 경계로 호월리와 명도2리와 접하고, 남쪽은 고성리 지역과 접한다. 북쪽은 봉평2리인 박곡(朴谷)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 도청동(道淸洞)

1720년경에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개척하였다 하며, 냇물이 마을 앞 도로를 따라 맑게 흐르고 있다 하여 도청(道淸)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산성교(山城橋)를 건너 옛 도로를 따라 20m 거리에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2) 돈덕동(敦德洞)

돈덕(敦德)골 또는 돈늪(敦爐)골이라고도 부른다. 마을 앞 산록(山麓)에 현풍 곽씨(玄風郭氏)의 묘비(墓碑)가 있으며, 이를 돈덕(敦德)·돈노(敦爐)의 비(碑)라 하여 돈덕골 또는 돈늪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1800년경에 울진 장씨(蔚珍張氏)가 개척하였다 한다.

3) 등명동(燈明洞)

1710년경에 신안 주씨(新安朱氏)가 개척하였다고 전하며, 마을 뒷산에 있는 고분(古墳)의 모양이 등불을 켜놓은 것 같다 하여 등명(燈明)으로 부른다.

4) 섯터(新基)

1890년경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개척하였다고 하며,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섯터라 부른다.

3. 가구 분포

7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신안 주씨(新安朱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울진 임씨(蔚珍林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하마비(下馬碑)

산성교(山城橋)를 건너 도청동 방향으로 약 20m쯤에 하마비(下馬碑) 1기가 있다. 고산성(古山城)이 있을 때 세워진 것으로 추측된다.

5. 김씨 집안이 마을을 떠난 까닭

등명동(燈明洞)에 김씨(金氏)들이 살았는데, 자손들이 묘지(墓地) 선정을 풍수가에게 청하였더니 마을 중앙의 산 등에 묘지를 정하고 굴착하다가 석곽이 나오면 석곽을 파괴하지 말고 그 위에 안장(安葬)토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자손들이 석곽을 파괴하여 버렸는데, 그 파괴된 석곽 속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김씨(金氏) 일가는 망하여 이 마을을 떠나 버렸다 한다.

제6절 명도2리(明道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으로 화성리와 연결하고 소백산(小白山)에서 발원하는 냇물이 흐르고 있으며, 건너편의 능선은 봉평리 지역이다. 서쪽은 현종산(縣鍾山)이 바라보이고, 북면 사계리와 울진읍 정림2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남쪽은 현종산(縣鍾山) 지맥인 마을 앞산이 있고, 산 너머는 호월리 지역이다. 마을회관은 2006년에 신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마을의 역사

1) 세거리(三居里)

개척(開拓) 연대는 미상이며, 울진 읍내리로 가는 길과, 죽변으로 가는 길, 사계(沙溪)와 하당(下塘)으로 가는 길이 교차하는 산정(山頂)에 형성된 10여 가구의 작은 촌락이다.

2) 아산동(鵝山洞)

1592년(선조 25)에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를 지낸 경주인(慶州人) 최한우(崔漢佑)가 관직(官職)을 그만두고 울진에 내려와 산수(山水)가 수려함을 보고 정착하여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당시 주위의 산(山)과 앞 못(池)에 기러기가 많이 서식(棲息)하고 있음을 보고 마을 이름을 아산(鵝山)이라 하였다 한다. 그 후 광주 노씨(光州盧氏)가 입주(入住)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